

반이민정당의 성장이 주류 좌·우파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서유럽 8개국에 대한 제6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 분석*

강신구 | 아주대학교

| 국문요약 |

최근의 유럽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반이민정당의 성장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주류 좌·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서유럽 8개국 시민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극우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 반이민정당들이 이민자들과 일자리·복지·주거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 좌파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믿어져 온 - 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이들 생산직 노동자들이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한 계급적 속성을 넘어, EU통합과 이민의 효과와 같은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다항로지트모형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만약 반이민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졌더라면 응답자는 누구에게 투표하였을 것인가’라는 반사실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이민정당 지지의 성장이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의 손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 반이민정당, 극우정당, 주류 좌·우파 정당, 생산직 노동자, 반사실적 실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6141). 논문의 수정과 발전에 좋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한다.

1. 들어가며: 반이민정당의 성장과 이를 둘러싼 쟁점

최근의 유럽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정당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반이민정당(anti-immigration parties)의 성장이다. 이민과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이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에 대한 반대(반이민·반EU·반다문화사회) 등을 공통분모로 하는 이들 반이민정당들은 1980년대 일부의 유럽국가에 등장한 이후,¹⁾ 꾸준히 그 세를 확장해 오고 있다.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녹색당 등의 신좌파 정당(New Left parties)의 성장경로와 유사하게, 이들 반이민정당들 역시 초기에 주로 일부 국가의 지방선거(local·municipal election)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19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 전국단위로, 그리고 다른 국가로, 그 활동영역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넓혀왔다.

이와 같은 성장의 결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치러진 국내 총선에서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가 10 퍼센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급기야 2014년에 치러진 제8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반EU를 주장해 온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과 영국의 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 그리고 덴마크의 국민당(DF: Dansk Folkeparti)이 자국 내의 주요 정당을 제치고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국민은 물론 전 유럽,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였다(강유덕 2014; 오정은 2014).²⁾ 물론 모든 반이민정당들이 방금 소개한 정당들과 같은 수준의 선거정치에서의 성공(electoral success)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같은 나라에서도 선거의 수준, 즉 지방선거냐, 전국선거(national election)냐,

1) 물론 이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이나 스위스 인민당(SVP)처럼,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반이민정책을 비롯한 극우적 입장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Kitschelt and McGann 1995, Gallagher et al. 2011 등)

2) Charlemagne European politics (2014-05-26). "The National Front's victory: France in shock". Economist.com. <http://www.economist.com/blogs/charlemagne/2014/05/national-fronts-victory> (검색일: 2015.07.31)

아니면 유럽적 수준의 선거냐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변이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약 30여년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준 이들 반이민정당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단순한 양적성장을 넘어, 이들이 공통분모로 삼고 있는 반이민, 반EU, 반다문화사회의 입장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이나 인종주의(racism)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으며, 일부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기에,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반이민정당의 성장을 심각한 우려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왔다.

이들 반이민정당은 일반적으로 ‘극우정당’(the extreme right parties)으로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³⁾ 이들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적 입장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서유럽 정당들의 ‘좌·우’ 이념적 경쟁구도 속에서 기존의 주류 우파정당들(mainstream parties of right)보다 더 ‘우측’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국가(nation-state)의 단위로 구성되어 온 전통질서와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이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적실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이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것은 묘한 수수께끼를 가지게 된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념경쟁의 ‘좌·우’차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중첩성·모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좌·우 차원의 개념의 중첩성·모호성’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좌·우’의 이념경쟁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갈등에 기반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립과 개인적 자유와 선택을 어느 사회에나 통용되는 보편가치로서 존중하는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입장과 특

3) 이 외에도 far right parties, radical right parties,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등의 다양한 용어가 1980년대 이후 반이민정책을 표방하며 등장한 정당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반 데 부르크 등은 이들 정당들, 특히 서유럽의 국가들에서 등장한 이들 정당들을 다른 정당들과 확연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반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반이민정당’(anti-immigration parties)으로 부를 것을 주장한 바 있다(van der Brug et al. 2005).

정한 사회를 유지해온 역사와 전통, 공동체적 질서를 존중하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입장 사이의 갈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대립을 결합하는 형태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을 말한다.⁴⁾

그렇다면,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이민의 유입이 가져오게 될 위협에 대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은 명백히 ‘우파’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민의 유입에 의한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것인가? 그들은 아마도 저임금을 감수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 의해 실업의 위기를 겪게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의 한정된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이민자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노동자 계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반이민정당의 주된 지지층은 도시빈민·노동자일 수 있는 것이다. 반이민정당의 지지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이들 정당의 지지자 집단에 과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Betz 1994; Kriesi et al 2006; Goodwin 2010 등).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갈등축을 기반하여 활동해 온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좌파 정당(mainstream parties of left)의 주요 지지층을 구성해 온 집단이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는 극우정당으로서의 반이민정당이 좌파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글에서 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발견할 수 있다. ‘왜 노동자는 극우적인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러나 우

4) 산업사회의 주된 갈등은 경제적 차원의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이 구정치(old politics)를 구성해 온 것으로 이해하면, 서유럽의 사회들이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갈등을 둘러싸고 신정치(new politics)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차원의 갈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서유럽 정당의 이념적 경쟁구도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형성되었겠지만, 경험적으로 두 차원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 좌를 지지하는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시장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우를 지지하는 입장이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차원의 갈등이 결합하게 되면서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좌-우’의 이념갈등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left-libertarian’과 ‘right-authoritarian’ 사이의 대립으로 재편된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itschelt 1994)

리의 물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고 답하고자 하는 수수께끼는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즉 ‘반이민정당은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구로부터 표를 빼앗아 오는가?’, 혹은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주된 경쟁자인가?’라는 물음이다.

아마도 일부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것은 당연히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자 집단을 빼앗긴 주류 좌파정당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투표선택에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의 영향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개인의 투표행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계급과 같은 사회경제적 속성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된 반면,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투표(issue voting)의 양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전후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류 좌파와 주류 우파의 경제적 입장의 차이가 축소된 것이 이러한 경향성의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들에게는 ‘기권’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즉 어떤 이유에선가 특정 정당에게 실망을 하고 그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들은 노동자라고 해서 주류 좌파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예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향후 유럽사회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메귀드는 반이민정당과 같은 틈새정당(niche party)의 성장을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메귀드의 주장은 이들 틈새 정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정책투표자라면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비슷한 정책을 제시하는 두 정당이 있다면 보다 큰 정당, 즉 주류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결국 반이민정당과 같은 틈새정당의 성장은 틈새정당이 제기하는 쟁점을 빼앗아 오지 않는 혹은 빼앗아 오지 못하는 주류정당(들)과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Meguid 2005). 어떤 이유에서건 반이민정당의 성장을 묵인해 왔을지라도, 이들 반이민정당에게 빼앗기는 표의 규모가

목인의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류정당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쪽이 먼저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누가 먼저 행동하는가에 따라 이들이 주류정당이라는 조건 속에서 유럽사회의 이민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에서 우리는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가, 왜,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이후의 경험적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도출·소개하고, 가장 최근에 공개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제6차 조사에 포함된 서유럽 8개국(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반이민정당의 주된 경쟁자가 누구인지 답할 것이다.

II.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대한 설명

1980년대 이후 반이민정당이 서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성장

5) 유럽사회조사는 유럽인들의 사회·정치적 가치의 상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이후 매 2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국제협력연구 프로젝트이며, 제6차 조사는 2012년부터 2013년 중반 사이의 기간에, 동유럽과 이스라엘, 코소보를 포함한 29개 국가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동유럽의 극우정당을 반이민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동유럽의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15개의 서유럽 국가들 중 설문조사 전 가장 최근에 치러진 국내의회선거에서 반이민정당이 5 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은 8개국을 경험적 분석에 포함하였다. 반이민정당이 매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FPÖ, BZÖ)는 이번 6차 조사에서 제외되었기에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2014년에 시작된 제7차 조사는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초기에는 이들 반이민정당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함께 부활하기 시작한 파시스트 계승정당을 포함한 극우정당들의 성격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에 주목하기도 하였지만(Kitschelt 1995), 후자의 극우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됨에 따라, 보다 대중적(populist)인 성격을 갖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보여주는 변이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김민정·홍지영 2012; Golder 2003 등).

다양한 이론들이 이들 반이민정당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크게 개인의 정당지지동기에 주목하는 미시적 설명과 선거제도, 문화와 같은 구조적 환경에 주목하는 거시적 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험적 분석은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 적절치 않기에, 지금의 검토에서는 미시적 설명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미시적 설명의 많은 입장은 이민의 위협에 주목한다. 다만 위협의 성격에 대한 차이가 이들 중에 존재한다. 일부는 이민에 의한 경제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의 많은 부분이 이민에 의해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고, 이민자들과 일자리나 복지혜택, 저렴한 주거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민의 위협이 탈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세계화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들은 이런 집단을 ‘근대화의 패자’(losers of modernity, Betz 1994), ‘세계화의 패자’(losers of globalization, Goodwin 2010), ‘성난 백인들’(angry white men, Kriesi 2006) 등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생산직 노동

6)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유럽사회조사자료는 하나의 시간대에 여러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른바 원샷 서베이(One-shot survey) 자료이다. 비록 여러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 내에서 제도나 문화적 차이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수(constant)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적 요인들의 변이(variation)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제도적·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이항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은 미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시적 요인들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이 보이는 거시적·구조적 차이를 포괄하는(하지만 그래서 각각의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구별해내기는 불가능한) 국가더미를 포함하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의 미시적 동기에 분석을 집중하고자 한다.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제도적·설명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는 고상두·기주옥(2013) 참조.

자들이 이러한 집단으로 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설명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인의 ‘인식’에 주목하는 설명도 존재한다. 즉 실체로서의 위협과 ‘인식된 위협’(perceived threat)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민이 자신이나 자국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반이민정당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상한다(김민정·홍지영 2012).

위와 같은 입장들이 이민의 경제적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면,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위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으로 인한 다문화주의가 자국의 정체성이나 문화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즉 이들은 이민의 문화적 위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Lucassen and Lubbers 2011; Norris 2005).

위협을 인식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아무에게나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적절하다고 믿거나, 혹은 아무도 그 위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쟁점화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것이다.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미시적 설명을 제시하는 또 다른 입장은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정책투표”(van der Brug et al. 2013)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는 좌·우 차원의 이념경쟁에서의 정책입장, 또는 이민정책에서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Kitschelt 1995; Lubbers et al. 2002; van der Brug and Fennema 2003 등). 정책비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입장은 다른 한편으로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를 ‘합리적 투표’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입장은 이들을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거대한 사회변혁의 또 다른 산물로서 이해한다. 앞서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좌·우 이념갈등이 후기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접목되는 형태로 변모해 왔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변모된 새로운 이념갈등의 차원은, 굳이 전통적인 좌·우 갈등과 구분한다면, ‘좌파-자유지상주의자’(left-libertarian)와 ‘우파-권위주의자’(right-authoritarian)의 갈등축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표현되고는 한다(Kitschelt 1994). 후기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체계를 갖추면서

등장하게 된 탈물질주의자(Inglehart 1971) 세대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환경당 등과 같은 New Left 정당의 지지자가 되었다면, 이 세대가 모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은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의 붕괴,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약화, 국민적 정체성의 상실, 권위의 쇠퇴 등과 같은 현상에 혼란스러워 하며, 권위의 복원을 희망하게 되고, 이들이 반이민정당의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적 가치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점에서 물질주의자와는 구별되지만, 권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의 대척점(antithese)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Ignazi 1992, 2003).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는 다른 한편으로 기성 정당(established parties)에 대한 지지의 철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입장은 이들에 대한 지지가 현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는 카르텔화된 기성정당(Katz and Mair 1995)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투표(protest vote)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Belanger and Aarts 2006; Bergh 2004).

이상에서 우리는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기존의 미시적 설명을 대략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설명들을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설문과 응답들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로서, 응답자의 성별(남성⁷⁾),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적 지위, 종교행사참여, 소수자 지위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남성의 변수는 단순한 통제변수로서의 성격을 넘어, 위의 설명 중 특히 경제적 위협과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향수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즉, 상대적으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감을 아직까지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가지기에 이민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리라고 예상

7)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수가 서술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굵은 굴림체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조작화와 코딩에 대해서는 <표A2> 참조.

하는 것이며, 남성중심의 산업사회에서 보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후기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권위의 상실을 더 크게 느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의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낮을수록, 이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소수자 지위는 이민에 의한 문화적 위협의 인식과 관련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변수로, 사회 속에서 소수의 인식을 경험했던 유권자일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종교행사참여는 응답자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했는가를 측정하는 변수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통제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후에 소개하게 될 경험적 분석방법(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의 성격상 주류 우파에 대한 지지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의 상대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변수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관련하여, **실업경험**, **노조참여경험**,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한 10개의 이항변수를 구성하였다. 실업의 경험 여부는 응답자의 경제적 위협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수로서, 실업의 경험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조참여경험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와 주류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의 상대적 차이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제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자라면 좌파의 정당에게, 자본가라면 우파의 정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계급투표(class voting)의 예상은 개인의 직업이 사회·경제적 관계를 구성하고, 결국에는 개인의 정치적 선호(political preference)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고도로 분화된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적실성을 이미 잃었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한다. 일례로 노동자 중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와 생산직 노동자 사이에 정치적 선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국제표준직업분류표8(ISCO 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8)에 따른 600여개가 넘는 직업의 범주를, 직업논리(work logic)에 따른 4개의 수평

적 구분과 숙련수준(markerable skills)에 따른 2단계의 수직적 구분을 조합하여 8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한 오이쉬(Oesch 2006)에 따라 8개의 이항변수(**사회문화적 전문직,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생산노동직, 관리직, 사무직, 기업가/고소득 자영업, 소규모자영업/농·임·어업**)를 구성하고, 이에 학생과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무직의 범주를 더하여 총 10개의 직업과 관련한 이항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변수는 생산노동직으로 전통적인 블루 컬러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과 소규모자영업자,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이민의 경제적 위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유권자들로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의 정치적 속성과 관련하여, **정치관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좌·우 본인이념인식, 경제적 좌우인식, 사회문화적 좌우인식,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정부만족도, 경제만족도, 민주주의만족도** 등의 변수가 구성되었다. 이 중 좌·우 본인이념인식, 경제적 좌우인식, 사회문화적 좌우인식은 응답자가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이념에 따라 이해하고 투표하게 된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구성된 변수이다. 이를 굳이 세 가지의 변수로 구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좌·우’의 개념이 가지는 중첩성을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당신은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경제적 차원의 좌·우 인식을 묻는 물음과, ‘당신은 ‘게이나 레스비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자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좌·우 인식을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과 함께,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좌·우의 이념인식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정부만족도, 경제만족도, 민주주의만족도의 변수들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기성 정치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포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관심은 기권과의 관계 속에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알기 위하여 포함된 통제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최종적으로 응답자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EU 통합 확대, 이민수용의 경제적효과(공**

정적), 이민수용의 문화적효과(긍정적), 이민수용의 일반적효과(긍정적)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11점 척도로 구성된 것으로서, 값이 클수록 이민과,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한 EU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⁸⁾

III.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미시적·경험적 분석

이제부터 우리는 앞서 소개한 변수들을 통해서 2012년부터 2013년 중반 사이의 기간에 실시된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유럽 8개국 시민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극우정당이 보이는 반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동유럽을 제외하였으며, 2012년 실시된 조사의 직전, 가장 최근의 국내 의회 선거(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에서 반이민정당이 5 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8개의 국가들로 분석을 제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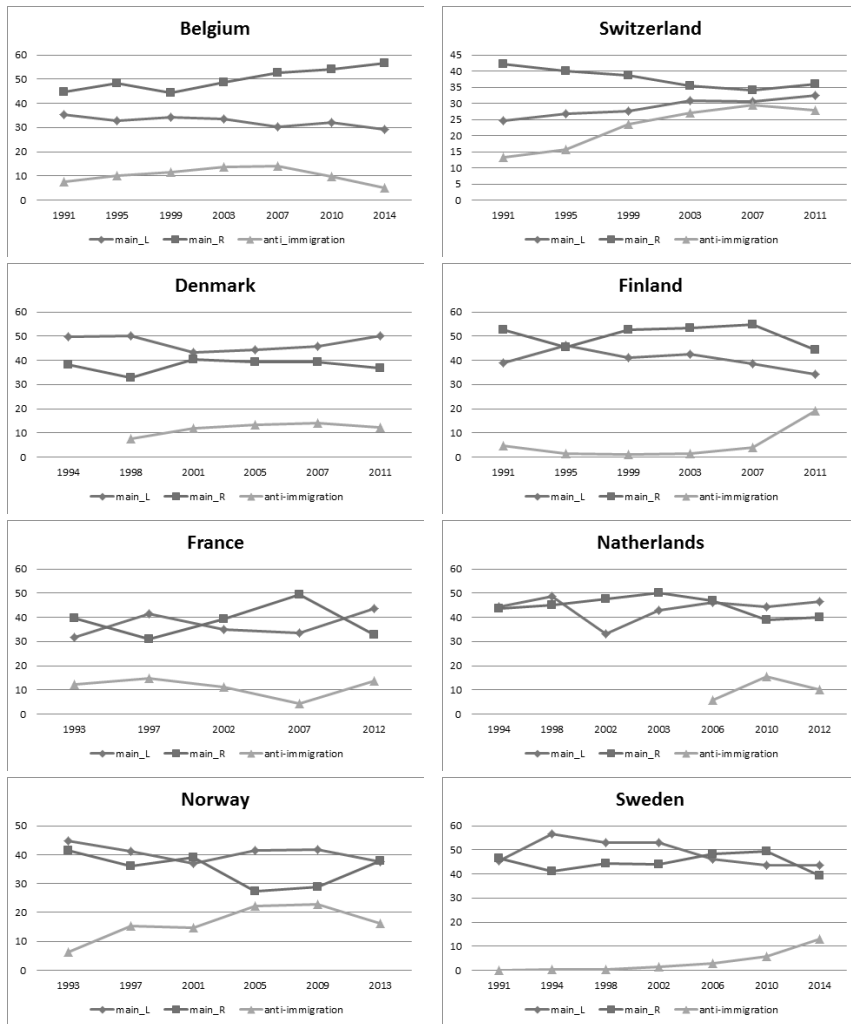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들 8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개괄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0년 이후부터 2012년 제6차 유럽사회조사 이전까지 치러진 의회선거의 결과를 <그림1>에 표현하였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정당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형성·발전되어 왔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을 party family에 따라 주류 좌파, 주류 우파, 그리고 반이

8) <표A3>는 위에서 소개한 독립변수의 분포를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자와 그 외의 투표자(기권자 포함)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록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비교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자와 그 밖에 투표자 사이에 보여 주는 속성의 차이를 거칠게나마 보여줄 수 있다.

민정당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민주당, 사회당, 그리고 환경당 계열의 정당은 주류 좌파에, 기독교 민주당, 보수당, 중도, 농민당 등은 주류 우파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liberal 계열의 정당은 성격이 모호하지만, 각국의 관련 사례연구를

<그림1> 주류 좌우파 정당과 반이민정당의 득표율 변화: 서유럽 8개국, 1990~2014



주: 주류 좌·우파 정당과 반이민정당의 분류는 <표 A1> 참조

출처: <http://www.parties-and-elections.eu>(검색일: 2015.07.31).

참조하여, 선거동맹(pre-electoral coalition)의 여부에 따라, 이것이 부재한 경우, 선거 전·후의 연정의 구성양상에 따라 주류 좌파에 속하는지, 주류 우파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였다. <표A1>은 이중 마지막에 치러진 선거, 즉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유권자의 투표선택의 대상이 되었던 정당을 주류 좌파, 주류 우파, 그리고 반이민정당으로 분류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을 통해서 이들 8개국에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여년의 기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그 이전 보다는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벨기에를 제외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 경우에도 그 이전의 1990년대의 선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벨기에이다. 벨기에의 경우 중도우파계열의 liberal한 성격을 가지는 신플랑드르 연합(NVA: Nieuw-Vlaamse Alliantie)이 2012년 선거에서 플랑드르 지역주의를 강조하면서 반이민정당에 속하는 Vlaams Belang(VB)과 Front National(FN, Parti Populaire 2010년 이후)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NVA가 지역과 민족적(ethnic) 정서에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반이민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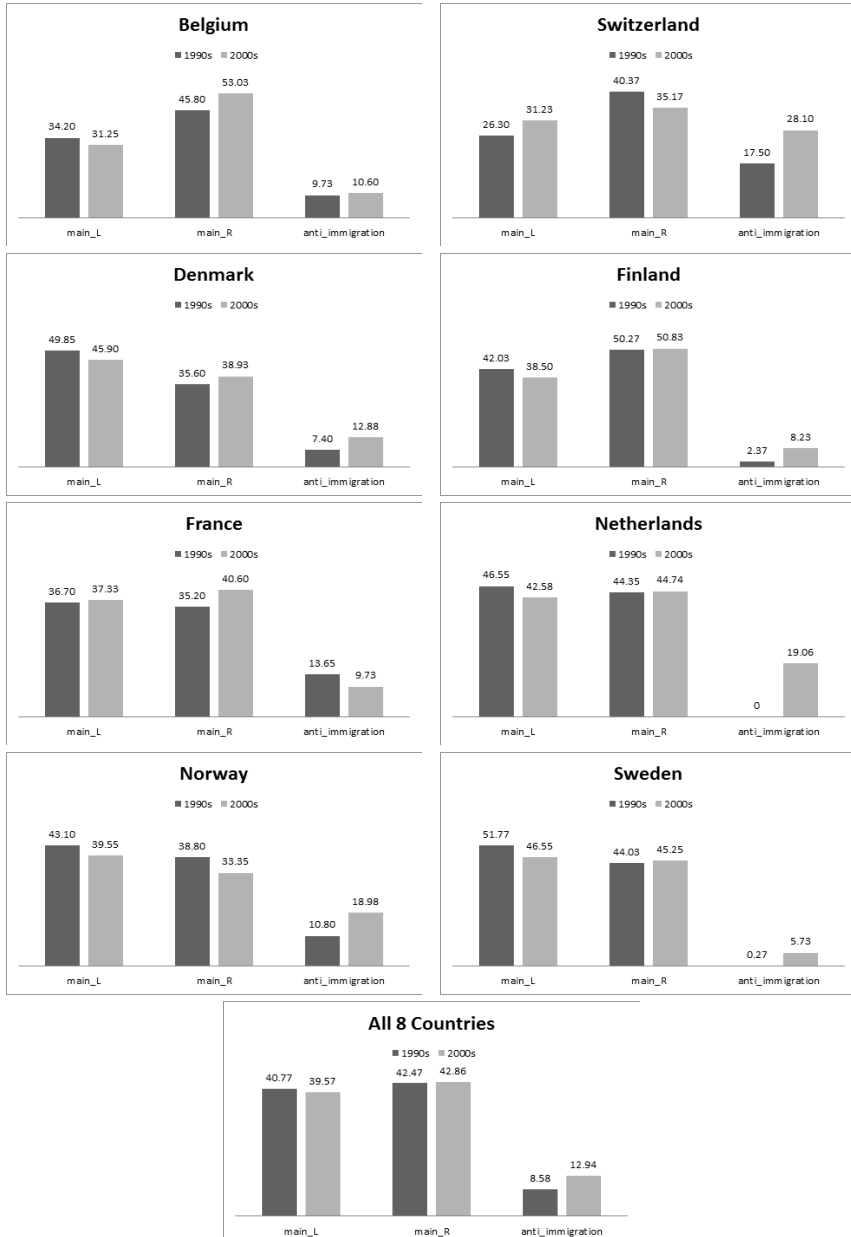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반이민정당지지의 성장이 주류 좌파와 주류 우파에 대한 지지 중, 누구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정사각형의 마커로 표시된 주류 우파에 대한 지지가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추세, 즉 서로 표를 뺏고 빼앗기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는 국가는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며, 마름모의 마커로 표시된 주류 좌파에 대한 지지가 그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국가는 2007년 이전까지의 벨기에, 덴마크, 2000년대 이후의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즉, 현재의 그림으로는 누가 반이민정당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선거에서의 득표변화를 주류 좌파, 주류 우파, 반이민정당, 그리고 국가별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림2>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특정한 하나의 선거가 아닌 10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산정된 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 결과는 조금은 더 저변에 흐르는 지지율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앞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의 <그림1>은 벨기에에서는 주류 우파와 반이민정당이 서로 표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그림2>는 주류 좌파와 반이민정당이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근소하여 무어라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그림2>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의 패널에서 보여주고 있는 8개국 전체의 평균값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류 좌파와 주류 우파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선거에서의 지지율 차이는 매우 근소한 반면,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8.6 퍼센트에서 12.9 퍼센트로 약 50 퍼센트(4.3 퍼센트포인트) 가량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반이민정당이 주류 좌파도, 주류 우파도 아닌 다른 군소정당의 표를 흡수했거나, 아님 이전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던 기권자 층을 새로이 투표소로 이끌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표A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정당 분류는 해당 국가의 정당 체제 내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얻은 정당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자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서는 기권 또한 유권자의 유의미한 선택의 하나로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2〉 주류 좌우파 정당과 반이민정당의 득표율 변화:1990년대와 2000년대 비교



주: 국가별로 해당 기간 치러진 의회선거의 득표율을 평균한 값.

위와 같은 검토와 고려에 의해서 우리는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의 종속변수로서 제6차 유럽사회조사의 이전, 가장 최근에 치러진 국내의회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기권(0), 주류 좌파정당에의 투표(1), 주류 우파정당에의 투표(2), 반이민정당에의 투표(3)이라는 네 개의 값을 갖는 다항범주변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1>은 표본에 나타난 투표선택의 분포와 해당국가의 실제 선거결과를 전체와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1〉 표본의 투표선택 분포 및 실제 선거결과와의 비교

	응답자수	투표선택:				
		기권	주류좌파	주류우파	반이민정당	기타
전체	12,208	1,998 (16.4%)	4,504 (36.9%)	4,307 (35.3%)	925 (7.6%)	474 (3.9%)
벨기에	1,533	175 (11.4%)	480 (31.3%)	721 (47.0%)	55 (3.6%)	102 (6.7%)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35.6	53.1	4.1	7.5
실제선거결과(2010년)		10.7	32.1	54.0	9.6	4.3
스위스	1,157	414 (35.8%)	266 (23.0%)	298 (25.8%)	133 (11.5%)	46 (4.0%)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35.8	40.1	17.9	6.2
실제선거결과(2011년)		51.4	32.5	36.1	27.8	3.6
덴마크	1,418	91 (6.4%)	747 (52.7%)	443 (31.2%)	117 (8.3%)	20 (1.4%)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56.3	33.4	8.8	1.5
실제선거결과(2011년)		12.3	50.3	36.6	12.3	0.8
핀란드	1,803	305 (16.9%)	554 (30.7%)	710 (39.4%)	202 (11.2%)	32 (1.8%)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37.0	47.4	13.5	2.1
실제선거결과(2011년)		29.6	34.4	44.5	19.0	2.1
프랑스	1,631	375 (23.0%)	595 (36.5%)	418 (25.6%)	126 (7.7%)	117 (7.2%)

응답자수	투표선택:				
	기권	주류좌파	주류우파	반이민정당	기타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47.4	33.3	10.0	9.3
실제선거결과(2012년)	42.8	43.5	32.9	13.6	10.0
네덜란드 1,703	291 (17.1%)	687 (40.3%)	573 (33.7%)	96 (5.6%)	56 (3.3%)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48.7	40.6	6.8	4.0
실제선거결과(2012년)	25.7	46.5	40.2	10.1	3.2
노르웨이 1,363	188 (13.8%)	507 (37.2%)	456 (33.5%)	132 (9.7%)	80 (5.9%)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43.2	38.8	11.2	6.8
실제선거결과(2009년)	24.3	41.9	28.9	22.9	6.3
스웨덴 1,600	159 (9.9%)	668 (41.8%)	688 (43.0%)	64 (4.0%)	21 (1.3%)
재산정된 표본득표율*		46.4	47.7	4.4	1.5
실제선거결과(2010년)	15.4	43.6	49.4	5.7	1.3

주: * 선거 이후 발표되는 정당의 득표율이 유권자수가 아닌 투표자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됨에 따라, 실제선거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재산정한 표본의 각 정당(군)별 득표율.

<표1>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주류 좌파와 주류 우파에 대한 투표는 표본과 실제결과 사이의 격차가 비교적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권과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는 표본의 결과가 실제의 결과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권과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정적 평가를 생각하면,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조사에서 조차 응답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택을 숨기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⁹⁾ 또한 이 결과는 이후의 투표선택에 대한 분석에서

9) 기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투표와 관련한 대중설문조사(mass survey)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발견이며, 이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회적으로 받는 일반적 평가의 모습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추정되는 회귀계수 중 특히 반이민정당과 기권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은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것 (underestimation)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다항변수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투표선택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기권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권을 동등한 선택지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에서 먼저 선거에 참여할지, 안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선거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후보(정당)이 있으면 투표하고, 아니면 기권하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기권을 투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정당들과 동일한 성격의 선택지 중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히 데이터가 산출되는 과정(data generation process)을 모형화하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⁰⁾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및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실은 종속변수의 변수값 하나를 기준범주(base outcome)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경우에서처럼 4개의 변수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추정할 경우, 하나의 변수값이 기준범주가 되고, 나머지 3개의 종속변수값에 따라 각각 하나의 회귀계수 군(群)이 추정결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 값은 기준범주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변수값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다항로짓모형은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1)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런 경우 분석은 기권(0),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투표(2), 반이민정당(3)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결과로 제시하며, 각각의 회귀계수 값이 의미하는 바는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와 비교하여 기권(혹은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투표,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을 선택하게 하는 데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의미한다. 만약 이것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응답자는 기권(혹은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투표,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을 하기보다는 주류 좌파에

10)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과 적용의 사례에 대해서는 Whitten and Palmer(1996), Quinn et al.(1999) 등 참조. 기권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사례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강신구(2013) 참조.

투표할 것을 의미한다. 기준범주가 아닌 범주들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회귀계수 값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¹¹⁾

다음의 <표2>와 <표3>은 투표선택에 대한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¹²⁾ 앞서 밝혔듯이, 이 분석에서 기준범주는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따라서 모든 추정된 회귀계수는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비교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2>에서 남성의 경우, 기권,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투표, 반 이민정당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각각 0.123, 0.002, 0.454로 나타나 있고, 마지막에 반이민정당에 대한 투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p < 0.001$). 비록 로짓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값에 대해서 비선형관계(nonlinear relationship)를 가정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선택확률의 변화를 가져 오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굳이 회귀계수의 크기로 비교하면,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물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지 않다!) 남성이 반이민정당 > 기권 \geq 주류 우파 \approx 주류 좌파의 순서로 여성들보다 선호를 “더” 부여하게 되지만, 반이민정당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고, 다른 투표 선택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확률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른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표2>와 <표3>을 구분하여 제시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으로서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 ‘왜 노동자는 극우적인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좌-우’ 개념의 중첩성과 블루칼라 남성노동자가 반이민정당지지층에 과대대표되는 기존 연구의 경험적 결과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게 된 배경이었다. <표2>와 <표3>의 비교는 과연 노동자가 극

11) 그러나 이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대부분의 통계패키지에서 별도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12) <표2>와 <표3>에 제시된 두 개의 분석모형 모두는 국가를 표시하는 이항변수가 함께 포함되어 분석되었지만, 이들의 회귀계수는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 변수들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한 제도적, 구조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적인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일부나마 줄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에서 특히 이와 관련있는 것은 생산노동직이다.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표2>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모형에 포함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주류 좌파정당보다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표를 던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모형은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노동자가 극우적인 반이민정당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은 반이민정당의 지지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과연 언제 생산직 노동자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게 되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때 새롭게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생산직 노동자로 하여금 반이민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stepwise)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최종적으로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U 통합확대와 이민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일반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수록 주류 좌파와 반이민정당의 선택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으로 모형은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2>의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 이러한 EU통합과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며, <표2>의 결과에서 보이는 생산직 노동자가 반이민정당에 대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지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 반영의 결과였지만, <표3>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통계적 유의미성의 상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생산직 노동자라고 반이민정당을 더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왜 생산직 노동자들이 이처럼 EU통합과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남아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왜 노동자는 극우적인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상세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

〈표2〉 투표선택에 대한 Multinomial Logit 분석결과: 모형 1

변수군	독립변수 \ 투표선택(중속)	기권	주류우파	반이민정당
인구통계	상수	2.585***	-4.326***	-2.109***
	남성	0.123	0.002	0.454***
	연령	-0.028***	0.003	-0.011***
	가계소득	-0.049**	0.048	-0.007
	교육수준	-0.158***	-0.001***	-0.232***
	주관적 사회적 지위	-0.094***	0.006	-0.021
	종교행사참여	-0.099	0.349***	-0.151
	소수자 지위	0.523**	-0.620**	-0.905**
사회	실업경험	0.151	-0.300***	-0.017
	노조참여경험	-0.430***	-0.186**	0.080
	직업: 사회문화적 전문직	-0.046	0.094	-0.628*
	전문기술직	0.055	0.292**	0.197
	생산노동직	0.028	-0.160	0.292**
	관리직	-0.154	0.241**	-0.071
	사무직	-0.066	0.026	-0.112
	기업가/고소득 자영업	0.376	0.097	0.061
	소규모자영업/농·임·어업	0.180	0.670***	0.459*
	정치 (이념, 쟁점)	정치관심	-0.536***	0.090*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0.126***	-0.060**	-0.108***
좌·우 본인이념인식		0.360***	0.801***	0.708***
경제적 좌우 인식		0.130**	0.288***	0.125**
사회문화적 좌우인식		0.132**	0.130***	0.191***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0.137***	-0.006	-0.181***
정부만족도		-0.017***	0.000	-0.220***
경제만족도		0.048*	0.031	0.007
민주주의만족도		-0.074**	-0.061**	-0.094**
사례수			9758	
로그우도 (log-likelihood)		-8401.540		
예측정확도 (PCP, %)		66.34 (6473/9758)		

주: 1) 벨기에(준거)를 제외한 국가의 이항(dummy)변수가 함께 포함되었으나, 이들 국가변수의 추정회귀계수는 표에 기록하지 않음. 2) Multinomial logit 분석의 준거집단(baseline category)는 주류좌파정당에 대한 투표.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표에는 추정된 회귀계수만 기록하고, 통계적 유의도는 *표와 굵은 글씨체로 표기: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표3〉 투표선택에 대한 Multinomial Logit 분석결과: 모형 2

변수군	독립변수 \ 투표선택(종속)	기권	주류우파	반이민정당	
인구통계	상수	2.777***	-4.057**	-1.147**	
	남성	0.137	0.008	0.484***	
	연령	-0.028***	0.003	-0.011***	
	가계소득	-0.049**	0.048***	-0.006	
	교육수준	-0.149***	0.012	-0.178***	
	주관적 사회적 지위	-0.090	0.009	-0.004	
	종교행사참여	-0.097	0.348***	-0.153	
	소수자 지위	0.546*	-0.589**	-0.821*	
	사회	실업경험	0.149	-0.302***	-0.011
		노조참여경험	-0.444***	-0.194**	0.059
직업: 사회문화적 전문직		-0.032	0.109	-0.590**	
전문기술직		0.050	0.276**	0.135	
생산노동직		0.011	-0.168	0.187	
관리직		-0.145	0.242*	-0.044	
사무직		-0.073	0.025	-0.141	
기업가/고소득 자영업		0.400	0.104	0.081	
소규모자영업/농·임·어업		0.165	0.659***	0.410*	
정치 (이념, 쟁점)		정치관심	-0.527***	0.104**	0.107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0.123***	-0.054**	-0.093**	
	좌·우 본인이념인식	0.359***	0.797***	0.675***	
	경제적 좌우 인식	0.128**	0.284***	0.116*	
	사회문화적 좌우인식	0.114**	0.111**	0.107*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0.120***	0.008	-0.110**	
	정부만족도	-0.011	0.005	-0.181***	
	경제만족도	0.055*	0.036	0.047	
	민주주의만족도	-0.069**	-0.053*	-0.057	
	EU 통합 확대	-0.042*	-0.033*	-0.127***	
	이민수용의 경제적효과(긍정적)	-0.015	0.014	-0.058*	
	이민수용의 문화적효과(긍정적)	0.001	-0.038	-0.109***	
	이민수용의 일반적효과(긍정적)	-0.025	-0.033	-0.138***	
	사례수		9758		
	로그우도 (log-likelihood)		-8300.744		
예측정확도 (PCP, %)		69.09 (6742/9758)			

주: 1) 벨기에(준거)를 제외한 국가의 이항(dummy)변수가 함께 포함되었으나, 이들 국가변수의 추정회귀계수는 표에 기록하지 않음. 2) Multinomial logit 분석의 준거집단(baseline category)는 주류좌파정당에 대한 투표.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표에는 추정된 회귀계수만 기록하고, 통계적 유의도는 *표와 굵은 글씨체로 표기: * $p < 0.05$, ** $p < 0.01$, *** $p < 0.001$ (양측검정)

모형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반이민정당보다는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이보다 오히려 기권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계 소득은 기권을 낮추고, 주류 우파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주류 좌파정당과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¹³⁾ 거꾸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권보다 오히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수 있음을 표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종교행사참여의 경험은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주류 우파정당에 기독교 민주당 등이 포함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수자로서의 경험은 특히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의 경험은 예상과는 달리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군과 관련하여 의사, 교사, 작가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전문직에서 특히 반이민정당과 비교하여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전문기술직, 관리직에서는 주류 좌파정당에 비교하여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관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특히 정치참여도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념의 인식과 관련한 세 변수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견은 비록 이러한 이념인식에 따라서 ‘우’에 해당하는 유권자일수록 주류 우파정당과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좌우차원의 인식에서 주류 우파정당과 반이민정당의 회귀계수가 보여주는 편차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보면, 반이민정당의 지지자들은 계급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의 이념 경쟁보다는 문화적인 좌-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3) 주류 우파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때, 둘 사이의 투표경향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좌·우(left-libertarian vs. right-authoritarian)의 갈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항의투표와 관련한 변수들의 경우, 기권과 반이민정당에 해당하는 회귀계수의 값이 비슷한 정도의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 정부와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주류 좌파정당보다는 반이민정당에 대해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또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비슷한 정도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IV.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본 연구의 핵심질문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그것은 ‘주류 좌파와 우파의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형이 데이터 산출과정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까닭에 더하여, 다항로짓분석이 본 연구의 핵심질문과 관련한 매우 유용한 추정값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항로짓모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개인이 (기준범주를 포함하여)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 선택확률의 예측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선택지들을 선택할 확률을 합이 1이 되는 형태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다항로짓분석에서는 그 예측치 중 최대값을 보이는 선택을 응답자가 선택했으리라고 가정하여 그 결과를 실제의 결과와 비교하여 모형의 예측정확도(PCP, percent of correct prediction)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어떤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인가를 비교하게 한다. 다음의 <그림3>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대각선방향으로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모형의 예측값과 실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모형 1의 좌측 맨 위 칸은 모형이 기권을 선택할 확률이 다른 정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 사람은 992명인데(윗줄 네 수의 합), 이 중에서 실제로 기권을 한 사람이 508명이라는 의미이다. 즉 정확한 예측(correct prediction)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2>와 <표3>의 맨 아랫줄에 표시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서 투표선택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림3> 모형 1과 모형 2의 예측표 비교

		모형 1 (<표2>)				모형 2 (<표3>)			
		실제 투표선택:				실제 투표선택:			
		기권	주좌	주우	반	기권	주좌	주우	반
예측:	기권	508	224	153	107	501	221	148	68
	주좌	496	2,961	619	186	490	2,961	610	137
	주우	344	650	2,886	361	346	641	2,891	178
	반	60	36	49	118	71	48	58	389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형 2의 예측표에서 맨 아래에 위치한 566명이다(아래줄 네 수의 합). 이들은 다항로짓모형이 반이민정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다른 어떤 정당이나 기권할 확률보다 크다고 예측한 사람들이다. 비록 이 중에서 실제로 반이민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389명으로, 표본전체에서 실제 반이민정당에 투표한 772명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모형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형 1과 비교했을 때, 모형 2의 예측정확도가 현저히 높아지게 된 주된 이유가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모형 2가 훨씬 더 나은 분석모형이라는 것 또한 의심하기 힘들다.

이들 566명은 모형이 반이민정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다른 어떤 정당이나 기권할 확률보다 크다고 예측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반(反)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을 할 수 있다. 즉, 모형이 두 번째로 높은 확률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측한 대안이 반이민정당이 투표용지(ballot paper)에서 사라졌을 때, 선택될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서 이 대안(alternative)이 반이민정당에게 표를 빼앗겼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가장 많은 표를 빼앗긴 대안이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대안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4>,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의 행은 이러한 반사실적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4> 반이민정당이 제외되었을 경우(counterfactual)의 투표선택분포 예측

		실제투표선택	예측값(모형2)	Counterfactual 상황
전체	기권	1,408	938	1,071
	주류좌파	3,871	4,198	4,281
	주류우파	3,707	4,056	4,406
	반이민정당	772	566	
벨기에	기권	135	60	65
	주류좌파	436	413	413
	주류우파	650	772	792
	반이민정당	49	25	
스위스	기권	247	275	302
	주류좌파	202	189	193
	주류우파	210	209	253
	반이민정당	89	75	
덴마크	기권	53	6	7
	주류좌파	607	661	685
	주류우파	362	370	420
	반이민정당	90	75	
핀란드	기권	229	129	164
	주류좌파	510	562	592
	주류우파	650	750	815

		실제투표선택	예측값(모형2)	Counterfactual 상황
	반이민정당	182	130	
프랑스	기권	302	254	278
	주류좌파	541	588	596
	주류우파	389	419	471
	반이민정당	113	84	
네덜란드	기권	196	115	128
	주류좌파	576	658	663
	주류우파	441	470	497
	반이민정당	75	45	
노르웨이	기권	153	81	106
	주류좌파	428	483	490
	주류우파	401	428	505
	반이민정당	119	109	
스웨덴	기권	93	18	21
	주류좌파	571	644	649
	주류우파	604	638	653
	반이민정당	55	23	

결국 566표의 재배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8개국 전체의 자료를 합쳤을 때(pooling), 표본의 실제투표선택과 모형2의 예측값 모두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가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보다 근소하나마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반이민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진 상황을 가정하면, 그 관계가 역전이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달리 말하면, 반이민정당은 주로 주류 우파정당의 표를 잠식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류 우파정당이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반(反)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의 예측은 근래 주류 우파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민의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통합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

이 시도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¹⁴⁾

다른 한 편, 이와 같은 예측의 결과가 모형 2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모형 2가 모형 1에서 발견되었던 생산직 노동자가 주류 좌파정당이 아닌 반이민정당에 대해 투표하게 되는 경향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변수를 찾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측과 모형의 결과는 생산직 노동자라고 해서 당연히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기대하기는 이미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약간의 과장을 덧붙여 이야기하면, 성급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계급투표(class voting)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일 수 있다.

V. 맺으며

최근의 유럽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반이민·반EU·반다문화사회를 정강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반이민정당의 성장이다. 1980년대 일부 국가의 지방선거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이들 반이민정당은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그 세를 확장하여, 2010년 이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치러진 전국선거(national election)에서는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가 10 퍼센트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반EU를 주장하는 이들 정당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민의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유럽의회

14) 일례로 덴마크의 중도우파정부는 2000년대 초반 반이민정당인 덴마크 국민당(DF)이 이민문제를 쟁점화하며 부상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난민·이민·통합부(Ministry for Refugees, Immigrants, and Integration)을 신설하여 이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난민·이민·통합부는 2011년 새로이 교체된 중도좌파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일깨워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15) <표3>의 결과를 보면 생산직노동자라는 속성이 주류 우파정당과 주류 좌파정당 사이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European Parliament)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주류 좌·우파 정당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프랑스, 영국, 덴마크에서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이들 정당의 성장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보다도 이들이 공통분모로 삼고 있는 반이민, 반EU, 반다문화사회의 입장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외국인혐오증이나 인종주의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으며, 일부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이민정당의 성장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주류 좌·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미시적·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선거 정치의 속성 상, 반이민정당의 성장은 주류 좌파나 우파의 정당에 대한 지지의 손실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는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이민정당에게 더 이상 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비록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이들의 직접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바,¹⁶⁾ 이들 반이민정당들이 기성 정당들에게 미치는 위협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이 향후 유럽의 이민정책, 유럽통합 정책의 향방을 전망하는 데 더 중요한 현실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에서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주류 좌·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이유이다.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주류 좌파와 우파 중 누구의 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는 그리 간단한 물음이 아니다. 국민국가(nation-state)의 단위로 구성되어 온 전통질서와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이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 반이민정당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서유

16) 대부분이 의회제인 유럽의 정치환경 속에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주된 변수는 연정(coalition government)에의 참여 여부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기성 정당들은 반이민정당을 연정협상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방역선’(cordon sanitaire) 전략,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왕따’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Kitschelt 2013)

렵 정당들의 ‘좌·우’ 이념적 경쟁구도 속에서 기존의 주류 우파정당들보다 더 ‘우측’에 존재하는 ‘극우정당’으로 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이민정당 지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 및 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지지가 주로 이민자들과 일자리, 복지혜택, 저렴한 주거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비숙련·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보고해왔다. 이들 노동자들이 계급 투표의 시각에서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을 구성함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결국 기존의 연구는 극우정당으로서의 반이민정당이 좌파의 전통적 지지층을 흡수하며 성장해 왔다는 일견 모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 우리는 과연 이들 생산직 노동자들이 다른 인구통계학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반이민정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 주류 좌파와 우파 정당 중 누가 반이민정당의 성장에 더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에 실시된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서유럽 8개국 시민들의 투표선택에 대한 우리의 다항로짓모형 분석의 결과는 생산직노동자라는 계급적 속성은 성별,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본인의 좌·우 이념인식, 경제적·사회문화적 좌우인식과 같은 알려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남아있지만, 그와 같은 통계적 유의미성은 분석모형에 EU 통합확대와 이민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일반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변수들이 포함될 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반이민정당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지지가 단순한 계급적 속성을 넘어서 EU 통합과 이민의 효과와 같은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노동자들은 왜 반이민정당을 지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일보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왜 노동자들이 그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여전한 물음으로 남아있다.

응답자가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선택될 확률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는 이 글에서 ‘만약 반이민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졌었다면 응답자는 누구에게 투표하였을 것인가’

라는 반사실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반이민정당이 없을 경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주류 우파정당으로, 이는 뒤집어서 반이민정당 지지의 성장이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의 손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근래 주류 우파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민의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통합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시도되는 것과 이와 같은 반사실적 실험의 결과는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생산직 노동자라고 해서 당연히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은 성급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계급투표(class voting)의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신구. 2013. "투표할 것인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나남. 307-344.
- 강유덕. 2014.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8 No.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상두·기주옥. 2013.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스페인 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47집 제1호. 185-203.
- 김민정·홍지영. 2012. "서유럽 극우정당 지지 동기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197-232.
- 오정은. 2014. "유럽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IOM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2014-07. 2014/05/national-fronts-victory> (검색일: 2015.07.31.)
- Belanger, Eric and Kees Aarts. 2006. "Explaining the Rise of the LPF: Issues, Discontent, and the 2002 Dutch Election." *Acta Politica* 41:4-20.
- Bergh, Johannes. 2004. "Protest Voting in Austria, Denmark, and Norway." *Scandinavian Political Science* 27(4):367-389.
- Betz, Hans-Georg. 1994.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arlemagne European politics (2014-05-26). "The National Front's victory: France in shock". Economist.com. <http://www.economist.com/blogs/charlemagne>(검색일: 2015.7.31.).
- Gallagher, Michael, Michael Laver, and Peter Mair. 2011.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Modern Europe*. London: McGraw-Hill.
- Golder, Matt. 2003. "Explaining Variation in the Success of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4):432-466.
- Goodwin, Matthew J. 2010. "Activism in Contemporary Extreme Right Parties: The Case of the British National Party(BNP)"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0(1):31-54.
- Ignazi, Piero. 1992. "The Silent Counter-Revolution: Hypotheses on the Emergence of Extreme Right-Wing Parti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2:3-34.

- Ignazi, Piero. 2003.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991-1017.
- Katz, Richard and Peter Mair. 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1(1):5-28.
- Kitschelt, Herbert and Anthony J. McGann. 1995.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itschelt, Herbert. 1994.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erbert. 2013. "Social Class and the Radical Right: Conceptualizing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and Partisan Choice." In Jens Rydgren. (ed.)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New York: Routledge. Pp. 224-251.
- Kriesi, Hanspeter, Edgar Grande, Romain Lachat, Martin Dolezal, Simon Bornshier, and Timothy Frey. 2006.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Political Space: Six European Countrie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6):921-956.
- Lubbers, Marcel, Merove Gijsberts, and Peer Scheepers. 2002. "Extreme Right-Wing Voting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3): 345-378.
- Lucassen, Geertje, and Marcel Lubbers. 2011. "Who Fears What?: Explaining Far-Right-Wing Preference in Europe by Distinguishing Perceived Cultural and Economic Thre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5):547-574.
- Meguid, Bonnie M. 2005. "Competition between Unequals: The Role of Mainstream Party Strategy in Niche Party Suc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347-359.
- Norris, Pippa. 2005.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sch, Daniel. 2006.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Britain,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Quinn, Kevin M., Andrew D. Martin, and Andrew B. Whitford. 1999. "Voter Choice in Multi-Party Democracies: A Test of Competing Theori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231-1247.
- van der Brug, Wouter and Meindert Fennema. 2003. "Protest or Mainstream? How the

- European Anti-Immigrant Parties Have Developed into Two Separate Groups by 1999."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55-76.
- van der Brug, Wouter, Meindert Fennema, and J. Tillie. 2005. "Why Some Anti-Immigrant Parties Fail and Others Succeed: A Two-Step Model of Aggregate Electoral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537-573.
- van der Brug, Wouter, Meindert Fennema, Sarah de Lange, and Inger Baller. 2013. "Radical Right Parties: Their Voters and their Electoral Competitors." In Jens Rydgren. (ed.)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New York: Routledge. Pp. 52-74.
- Whitten, Guy D. and Harvey D. Palmer. 1996. "Heightening Comparativists' Concern for Model Choice: Voting Behavior i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31-260.

투고일: 2015.09.04.	심사일: 2015.09.11.	게재확정일: 2015.10.04.
------------------	------------------	--------------------

(표 A1)서유럽 8개국 주류 좌우파 정당 및 반이민정당 분류

국가	주류 좌파 정당	주류 우파 정당	반이민정당
벨기에	Socialistische Partij. Anders (SP.A) Parti Socialiste (PS) De Vlaamse Groenen (GROEN) Écologistes (ECOLO)	Christen-Democratisch & Vlaams (CD&V) Centre Démocrate Humaniste (CDH) Vlaamse Liberalen en Democraten (VLD) Libertair, Direct, Democratisch (LDD) Mouvement Réformateur (MR) Nieuw-Vlaamse Alliantie (NVA)	Vlaams Belang (VB) Front National(FN)/Parti Populaire(2010 이후)
스위스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 (SP) Grüne Partei der Schweiz (GPS) Grünliberale Partei Schweiz (GLP)	Christlichdemokratische Volkspartei (CVP) Bürgerlich-Demokratische Partei Schweiz (BDP) Evangelische Volkspartei (EVP) Eidgenössische Demokratische Union (EDU) FDP. Die Liberalen (FDP)	Schweizerische Volkspartei (SVP) Mouvement Citoyens Genevois (MCG)
덴마크	Socialdemokratiet (SD) Enhedslisten - De Rød-Grønne (EL) Det Radikale Venstre (B) Socialistisk Folkeparti (SF)	Venstre - Danmarks Liberale Parti (V) Liberal Alliance (LA) Det Konservative Folkeparti (KF)	Dansk Folkeparti (DF)
핀란드	Suomen Sosialidemokraattinen Puolue (SDP) Vihreä Liitto (VIHR) Vasemmistoliitto (VAS)	Suomen Keskusta (KESK) Kansallinen Kokoomus (KOK) Svenska Folkepartiet i Finland (SFP) Suomen Kristillisdemokraatit (KD)	Perussuomalaiset (PS, True Finns)
프랑스	Parti Socialiste (PS) Front de Gauche (FG) Europe Écologie Les Verts (EELV) Parti Radical de Gauche (PRG)	Les Républicains (LR, 이전 UMP) Nouveau Centre (MC) Mouvement Démocrate Parti Radical (MoDem) Alliance Centriste (AC)	Front National (FN)
네덜란드	Partij van de Arbeid (PvdA) Socialistische Partij (SP) Democraten 66 (D66) Groen Links (GL) Partij voor de Dieren (PvdD)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VVD) Christen Democratisch Appèl (CDA) Christen Unie (CU) Staatskundig Gereformeerde Partij (SGP)	Partij voor de Vrijheid (PVV)
노르웨이	Arbeiderpartiet (AP) Sosialistisk Venstreparti (SV) Miljøpartiet De Grønne (MDG)	Høyre (H) Kristelig Folkeparti (KRF) Senterpartiet (SP)	Fremskrittspartiet (FRP)

국가	주류 좌파 정당	주류 우파 정당	반이민정당
스웨덴	Socialdemokratiska Arbetspartiet (S) Miljöpartiet De Gröna (MDG) Vänsterpartiet (V)	Moderata Samlingspartiet (M) Centerpartiet (C) Folkpartiet Liberalerna (FP) Kristdemokraterna (KD)	Sverigedemokraterna (SD)

주: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의 설명 참조. 괄호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

〈표 A2〉 변수의 조작화

변수명	설명	변수값
투표선택	종속변수.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자국의회선거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에서 투표한 정당	0=기권; 1=주류 좌파정당; 2=주류 우파정당; 3=반이민정당; 9=기타
남성	응답자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15세 ~ 101세
가계소득	응답자의 세후 가구소득 총합(10점 척도)	1=소득 하위 10% ~ 10=소득 상위 10%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수준. ISCED(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코딩을 7점 척도로 재구성	1=초등교육 졸 ~ 7=대학원 석사 이상
주관적 사회적 지위	(10단계로 구성된 수직사다리 그림을 보여주고) “당신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사회의 가장 밑 ~ 10=사회의 가장 위
종교행사 참여	“당신은 요새 얼마나 자주 종교행사에 참석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전혀 참석하지 않음 ~ 1=특별한 날에만 혹은 더 자주
소수자 지위	“당신은 이 나라에서 소수민족(minority ethnic) 집단에 속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아니오; 1=예
실업경험	“당신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아니오; 1=예
노조참여 경험	“당신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아니오; 1=예
직업:	Oesch(2006)의 8개 직업군 분류에 학생과 무직을 더하여 10개의 이항변수 구성	

변수명	설명	변수값
	사회문화적 전문직 (Socio-cultural professionals)	1=의사, 교사 등
	서비스직 (Service workers)	1=음식점·상점 종업원 등
	전문기술직 (Technical professionals)	1=엔지니어, 건축가 등
	생산노동직 (Production workers)	1=기능공, 목수, 조립공 등
	관리직 (Associate managers)	1=행정관리자, 회계사등
	사무직 (Office clerks)	1=행정사무직, 비서 등
	기업가/고소득 자영업 (Liberal professionals and large employers)	1=기업가, 법조인 등
	소규모자영업/농·임·어업 (Small business owners and farmers)	1=소규모자영업, 농·어민 등
	학생	1=학생
	무직	1=직업경험없음
정치관심	“당신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4점 척도)	1=전혀 관심없음 ~ 4=매우 관심있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사는 것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전혀 중요하지 않음 ~ 10=매우 중요함
좌우 본인이념인식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좌’와 ‘우’를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좌 ~ 10=우
경제적 좌우 인식	“당신은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5점 척도)	1=강하게 동의함 ~ 5=강하게 부정함
사회문화적 좌우인식	“당신은 ‘게이나 레스비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 삶을 살 자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강하게 동의함 ~ 5=강하게 부정함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당신은 의회(정치인, 정당)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세 물음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각 11점 척도)	0=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0=전적으로 신뢰한다
정부만족도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전혀 만족하지 않음 ~ 10=매우 만족함

변수명	설명	변수값
경제만족도	“현재 국가의 경제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전혀 만족하지 않음 ~ 10=매우 만족함
민주주의만족도	“현재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전혀 만족하지 않음 ~ 10=매우 만족함
EU 통합 확대	“당신은 ‘유럽통합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유럽통합은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는 입장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너무 많이 이루어짐 ~ 10=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민수용의 경제적효과 (긍정적)	“당신은 이민의 유입이 우리의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부정적 ~ 10=긍정적
이민수용의 문화적효과 (긍정적)	“당신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적 삶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침해 ~ 10=풍요
이민수용의 일반적효과 (긍정적)	“당신은 이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11점 척도)	0=더 살기 어려운 곳 ~ 10=더 살기 좋은 곳

〈표 A3〉 표본의 반이민정당 투표자와 그 외 투표자의 비교

응답자수	반이민정당 투표자		그 외	
	772		8986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성	0.654	0.476	0.503	0.500
연령	51.026	16.523	50.598	17.097
가계소득	5.196	2.619	5.793	2.722
교육수준	3.089	1.442	3.977	1.897
주관적 사회적 지위	5.832	1.615	6.228	1.541
종교행사참여	0.517	0.500	0.568	0.495
소수자 지위	0.014	0.119	0.036	0.186
실업경험	0.310	0.463	0.278	0.448

응답자수	반이민정당 투표자		그 외	
	772		8986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조참여경험	0.617	0.487	0.590	0.492
정치관심	2.587	0.852	2.684	0.816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8.516	1.877	8.975	1.587
좌·우 본인이념인식	6.440	2.069	5.256	2.228
경제적 좌·우 인식	2.324	1.179	2.323	1.078
사회문화적 좌우인식	2.035	1.078	1.701	0.920
의회·정치인·정당에 대한 신뢰	3.889	2.053	5.091	1.905
정부 만족도	3.934	2.397	5.325	2.130
경제 만족도	5.087	2.564	5.668	2.241
민주주의 만족도	5.697	2.325	6.658	1.939
EU 통합 확대	3.570	2.467	5.033	2.372
이민수용의 경제적효과(긍정적)	3.939	2.330	5.464	2.190
이민수용의 문화적효과(긍정적)	4.593	2.650	6.423	2.244
이민수용의 일반적효과(긍정적)	3.918	2.191	5.606	2.066
직업* : 사회문화적 전문직	2.72%		9.87%	
서비스직	30.83%		32.33%	
전문기술직	12.18%		12.35%	
생산노동직	24.61%		11.75%	
관리직	7.64%		11.82%	
사무직	9.97%		11.84%	
기업가/고소득 자영업	1.68%		2.33%	
소규모자영업/농·임·어업	9.20%		5.46%	
학생	0.00%		0.58%	
무직	1.17%		1.67%	

주: *직업변수는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변수값의 백분율로 표시함.

【ABSTRACT】

The Effects of the Growth of the Anti-Immigration Parties on the Support of the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An Analysis of the 8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6th European Social Survey

Kang, Shin-Goo | Ajou Universit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enomena in European politic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s the rise of anti-immigration parties. Many concerned citizens are worried about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se parties, which have mobilized against immigration, European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lectoral support of these parties in relation to the support of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Our analysis on the eight West European national samples in the 6th European Social Survey shows that the anti-immigration parties, often more commonly called the extreme right parties, have attracted support from the presumed core supporting group of the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unskilled production workers who should compete with immigrants over scarce job, housing, welfare. Our result also shows that the main factors that make the workers vote for the anti-immigration parties are the worker's negative evaluation and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immigration. However, our counterfactual experiment based on the prediction of the multinomial logit model suggests that the anti-immigration parties have taken away the votes from the mainstream parties of the right. We believe that this resul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ecent hardline policy stance change on immigration by the latter parties.

Key Words | Anti-immigration parties, Extreme right parties,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Production workers, Counterfactual experiment